

창립 36주년 MBC사우회 단합대회

내년에 또 봅시다! 그 약속이 반가웠던 하루



2026.05.14 양주 문화동산/MBC사우회 단합대회

본사 소식

“손각지 끼고, 발뒤꿈치 들고,
두 팔을 위로 쪽쪽 펴세요!”
“○○○.....”

지난 5월 14일, 신록이 짙은 양주 문화동산에 모인 167명의 사우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다. 어디선가 터져 나온 신음에 웃음보가 터졌다. 사회를 맡은 고창근 사우의 구령에 맞춰 몸을 푸는 사우들은 운동회를 앞둔 초등학교 같았다.

“좋습니다! 앞으로 5년은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자~ 앞 사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툭, 툭, 툭. “아직 근육이 살아 있네!” 어느새 손길은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며 웃고 떠드는 학창 시절의 친구처럼 만들었다.

몸풀기로 시작된 사우회 창립 제36주년 기념 및 2026년 사우회 단합대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사가를 힘차게 제창했다. “~새 역사 가꾸는 우리의 보람, MBC문화방송 빛의 메아리” 세월은 흘러도 사우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여전하였다.

양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 선,후배, 동료, 그리고 오늘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형준 사장님과 본사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MBC는 우리 모두의 평생직장이자 자긍심을 키워준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고 했다. (2면에 계속)

■ MBC, 신뢰도 조사 '4년 연속 1위'

시장 데이터 분석기업 유고브(YouGov)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의뢰로 48개국의 미디어 이용자 9만여 명(국내 2,025명)을 상대로 진행한 뉴스브랜드 신뢰도 온라인 조사에서 MBC가 60%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JTBC 59%로 2위, SBS가 56%로 3위, YTN이 54%로 4위였다. 오프라인 매체 도달률 39%로 1위, 온라인 매체 도달률 27%로 2위를 기록했다.

■ 지선 개표방송 <선택 2026> 압도적 시청률 1위...순간 최고 9.8%

MBC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인 MBC<선택 2026>의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은 6.9%(닐슨코리아 기준)로 같은 시간대 KBS1(3.3%), SBS(2.6%), JTBC(1.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요 개표와 격전지 판세 분석이 본격화한 밤 9시쯤엔 순간 최고 시청률이 9.8%까지 치솟았다.

■ 손석희, MBC 라디오 복귀/<뉴스하이킥> 새 앵커에 조승원

손석희 앵커가 지난달 29일부터 개편된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12시>진행을 맡아 13년 만에 MBC 라디오에 복귀했다. 방송시간 12:05 ~14:00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인 <뉴스하이킥>의 새로운 앵커로 보도국 조승원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MBC+

CREATIVE MEDIA GROUP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국내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MBC every1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MBC SPORTS+

신한 SOL
KBO 리그
2026
Shinhan Bank

다채로운 콘텐츠의 즐거움!

MBC M

SHOW CHAMPION
K-POP FEVER TIME

에텐이동쪽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MBC ON

유부녀 킬러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MBC Drama

MBC

MBC+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CONTENTS CREATOR



재지있는 고창근 사우의 진행



인사말은 짧게! 양영철 사우회장



흥을 끌어올린 박미나 본부장의 격려사



숯불향 가득한 이동갈비 한 상



보도부문 사우들의 여유로운 한 컷



선글라스 만큼 빛나는 미소



건강은 내 손에! 의무실 이유진 차장



기념품 나누며 내년에 또 만납시다!

또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 준 든든한 동지이며 오랜 세월 변함없는 인연과 끈끈한 정을 나누게 해 주는 보금자리”라면서, “오늘은 시름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즐기시라”고 격려했다.

MBC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사우회가 최근 두 달 새 최대 4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전 기금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각별한 MBC의 동료애를 느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본사는 최근 실시된 언론 신뢰도 및 공익성 평가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소개하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또한,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MBC가 있기까지 애써오신 선배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귀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관심과 조언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사우들은 부문별로 지정된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주변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장명호 사우회 고문이 “MBC와 MBC 사우회를 위하여” 건배를 제안하자, 서로의 잔을 부딪쳤다. 숯불에 익어가는 이동 갈비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사우들은 겉보기에 예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까지 출장 갈비를 준비하던 식당 주인이 30대의 아들로 바뀌어 있었을 뿐 갈비를 먹는다는 것과 자리에 마주 앉은 풍경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시간까지 멈춰 있지 않았다.

오늘 대회에 참석한 관리 부문의 한 사우어는 “지난해 단합대회에서 ‘내년에 또 보자!’고 손을 흔들며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다시 얼굴을 마주하니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기술 부문의 한 사우 역시 “여러 사우와 손을 맞잡아 보니 지난 1년이란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번의 만남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축복인 것만 같다”라고 했다.

“서로가 무탈하게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단합대회의 의미는 충분하다”는 보도 부문의 한 사우어는 “앞으로 연부역강(年富力強- 젊고 기력이 왕성함)한 후배들이 많이 참여해 선배들과 소통하며 경험과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사우들도 ‘같은 하늘 아래 모여 웃고 정성껏 구운 갈비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이라는 생각엔 이견이 없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얼굴들이 참여해 단합대회가 한층 더 풍성해지기를 조심스레 바라는 사우들도 많았다.

갈비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오후 2시, 기념품을 받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우들은 서로에게 “내년에 또 보자!”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자는 약속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사우회 단합대회는 창립기념일 총회를 겸해 열렸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우들의 건강과 연대의식을 다져왔다. 한편 이번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사의 박미나 본부장을 비롯한 경영본부의 이학준 국장, 김형근 부장 등 본사 직원들이 행사의 진행을 도왔으며 본사 의무실 이유진 차장은 의약품들을 준비해 행사 전부터 행사장에 나와 사우들의 건강을 세심히 보살폈다.

정리: 편집장 윤영무

그날

“사람이 쓰러졌다!” 그 순간 달려간 MBC 사람들

단합대회에 참가했던 사우들이 줄지어 양주문화동산 행사장을 떠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사람이 쓰러졌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한 사우가 걸어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다. 마침 행사장에 있던 본사의 이유진 의무실 차장이 달려가고 뒤이어 본사 직원도 합류했다. 쓰러진 사우어는 김 아무개(85살)였다. 이 차장은 동료들과 그를 일으켜 앉히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연거푸 두드렸다. “정신 차려요, 정신!” 아무 반응이 없었다. 본사 직원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주변에 모인 사우들도 팔을 걷었다. 그늘을 만들고, 길을 터주고,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여럿이 다시 그를 바닥에 누고 현장으로 오고 있다는 119구급대원과 전화로 응급처치 지시를 받으면서 20여 분을 기다렸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그를 들것에 옮겨 싣고 구급차에 태웠다. “내가 갈 거야!” 그와 17년간 같이 근무했다는 지원용 사우가 자진해서 구급차 뒷자리에 탔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그의 휴대폰 연락처만 보고서는 누가 가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급대원은 ‘보호자만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나서 서너 시간 뒤 그의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님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넘어지면서 찢어진 상처를 꿰맨 뒤 퇴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였다. 여든다섯의 고령. 만에 하나 번고라도 생겼다면 이날의 단합대회는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 본사 의무실장과 직원들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동료 사우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꺼이 구급차에 오른 한 사우의 따뜻한 동행까지 더해졌다. 현역과 퇴역의 구분도 없었다. 쓰러진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덕분에 이날의 응급상황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MBC 사람들의 깊은 동료애와 연대가 빛난 아름답고도 값진 한 장면으로 기억할 만하였다.



쓰러진 사우에게 모여든 사우들



동료와 함께 병원으로

꽃이 전한 딸의 마음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베란다를 가득 메운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창문을 여는 순간, 은은하면서도 깊은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와! 이 향기 정말 좋네요. 어느 꽃에서 나는 건가요?” 김규서 사우(이하 ‘그’)는 가장 눈에 띄는 호접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난은 화려한 모습과 달리 향이 없어. 지금 맡고 있는 향은 따로 있지” 그는 소박하게 자리한 작은 난을 가리켰다. “향은 이 풍란(風蘭)에서 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섬의 바위나 나무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생란이지. 거센 겨울바람과 바닷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뒤, 봄이 되면 작고 하얀 꽃을 피우지. 꽃은 작아도 향기는 놀라울 만큼 짙고 깊어. 마치 긴 인고의 시간을 향기로 들려주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바위틈을 따라 물길을 찾아가며 마치 한 폭의 지도를 그려내는 것 같은 그 뿌리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미학을 느낄 수 있거든”

“화초를 가꾸는 보람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집에서 정성을 다해 화초를 가꾸는 이유 중 하나는 가끔 집에 오는 손주들 때문이지” 삭막한 집안 분위기를 보여주기보다는 싱그럽게 자라는 화초와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삶의 존귀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길 바라는 교육적인 뜻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관심은 스마트폰에 있었다. 베란다에서는 꽃이 계절을 따



라 피고 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 꽃을 함께 바라볼 가족들의 시선은 작은 화면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다.

“꽃을 키우며 제일 기뻐던 일이 있다면?” 하고 묻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있지요”. 그는 베란다 끝자락에 삐죽삐죽 자란 선인장 하나를 가리켰다. “바로 이 녀석이 우리 집에 가장 먼저 행운을 가져다주었지요” 지난 5월 19일, 15년 만에 폭죽처럼 ‘신비의 꽃’을 피운 선인장이자. 그는 이 꽃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도, 문기회 등에도 올렸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꽃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딸에게서 가슴 뭉클한 답장이 도착했다. “딸의 답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딸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진심을 비로소 본 것 같았어요. 그 꽃 한 송이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이어준, 우리 가정에 꽃이 전해준 가장 큰 행운이었습시다”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너무 꽃이 예쁘네.

이렇게 선인장도 사랑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주면 꽃을 피우는데, 자식들은 아무리 내가 애를 태우고 노력해도 꽃을 보기가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그게 인생인 건지.... 하여간 엄마, 아빠는 그동안 우리를 위해 정말 애쓰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 건강하게 여생 즐겁게 보내세요

그는 딸의 답장을 여러 번 읽었다. 딸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진심을 비로소 마주한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딸에게 여운이 있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기다려 봐. 기다리면 언젠가는 꽃이 핀단다. 그게 인생인 거야」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한 송이 선인장꽃이 결국 가족의 마음을 열고, 행복을 피워내듯이. 꽃이나 사람이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면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피워낼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꽃향기처럼 마음을 스친다.



15년 만에 꽃피운 용신목 선인장

고전동호회



마침내 『주역』을 펼치다

“아직도 주역을 점술로만 보는 편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닦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사우회 고전동호회(회장 양진수)가 마침내 동양 고전의 정수이자 ‘변화의 철학’으로 불리는 『주역』 공부에 들어갔다. 사우회 회의실에서 시작된 첫 시간에 이견세 훈장은 그같이 말하고, “살다 보면 의난(疑難, 의심스럽고 어려운)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럴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주역이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첫 수업에는 기존 회원 6명 외에 새로운 회원 7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눴고 주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다. 고전동호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논어』, 『맹자』, 『도덕경』, 『장자』 등 수십 권의 동양 고전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새겨왔다.

☎ 수강문의: 권혁화 총무 010-3739-0889

문 기 회 (문화방송기자회)

6월 30일, 문기회가 중구 다동 부민옥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점심값은 얼마 전 평생의 반려자를 떠나보내신 신대근 선배님께서 선뜻 계산하셨다. 깊은 슬픔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한턱을 내신 선배님의 마음에 모두가 숙연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월 산 회

월산회(회장 정광수) 회원 12명과 최준식 사우 등 15명은 6월 22일, 석달 전 심은 감자를 수확했다.

이번 수확은 박종규 회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원당텃밭 일부를 기꺼이 내어준 덕분이다. 점심에 회원들이 잔조한 수정방, 참외, 수박을 먹고 서리태 모종을 한 뒤, 수확한 감자를 한보따리씩 나누었다.



오늘의 캘리

“無諂無驕(무첨무교)”

돈 없어 가난해도
부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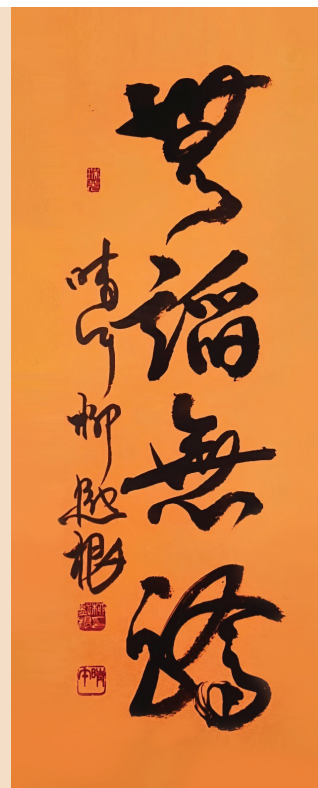
힘 없고 권력 없어도
힘 있는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고

힘 있는 권력자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다

- 논어 -

유희근 (보도) 사우의 글씨



사우탐방

숲이 답이었다. 10만 평의 산림경제 (山林經濟)

INTERVIEW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천하는 송원근 사우

생명의 참된 가치 회복을 위한 생태경제학

계룡역 개찰구를 나오는 일행을 송원근 사우(이하 그)가 맞아주었다. “별써 1년이 지났네요” 그가 김승원 사우(전 사우회보 편집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직 하늘에서 부르지 않네요, 허허허” 김 사우가 농담했다. 지난해 3월이었다. 그와 함께 산을 오르던 김 사우는 낙엽 더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그는 일행을 차에 태우고 출발 하자마자 이야기를 쏟아냈다. 계룡의 역사, 조선의 수도 후보지였던 신도안, 풍수지리와 산맥의 흐름까지. 행정학 박사라는 직함보다 입담이 더 박사급이다. “제가 가진 산림 10만 평은 계룡산에서 신도안을 거쳐 논산시 연산면 방향으로 뻗어가는 산줄기의 마지막 능선이지요.”

그는 《삼국사기》를 인용해 자신의 산과 이어진 황산벌이 계백의 5천 결 사대가 김유신의 5만 신라군과 맞서 최후를 맞은 격전지라고 했다. 바로 그곳에 국방대학교와 부속 골프장이 들어서 자신의 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였다.

“부동산 가치가 꽤 올랐겠는데요?” 옆자리에서 던진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웃으며 시세 이야기부터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저는 산림을 부동산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짧고 단호했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

어나 숲길로 접어들었다. 길이 패여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다. 창밖으로는 짙은 녹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였다. 수평 한 마리가 산길을 가로지르더니 “핑! 핑! 핑!” 프로펠러처럼 날개를 펄떡거리며 솟구쳐 올라 숲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창 밖으로 원시의 야생 숲이 이어졌다. 차가 깊숙이 들어갈수록 숲은 점점 풍만해졌다.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고, 계곡 바람은 숲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차창 안으로 스며들었다.



국사봉 자락 생태산림 10만평이 보이는 입구

그제야 그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가치는 평당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파트 단지나 리조트로 개발하면 안 될 곳이었다. 야생동물이 뛰놀고, 물과 바람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거대한 생명의 터전이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땅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이 함께 숨 쉬게 될 생태 공간임을 일행은 직감했다.

산중 텃새들의 합주 세속적인 잡념 소멸

3평 정도 될까 말까 평상을 놓은 쉼터

주변은 헨젤과 그레텔의 숲처럼 깊고 비밀스러웠다. 울창한 덤불과 관목 사이로 매실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생강나무와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그리고 한 아름은 될 소나무들이 숲의 기둥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다.

각종 산새들이 노래를 지저귀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새 소리의 선율에 화답했다. “쪼르릉 쪼르릉” 곤줄박이, “쿠우 쿠우 쿠” 산비둘기, “빠죽 빠죽” 빠꾸기, 그리고 검은 등빠꾸기의 “흑흑흑흑” 우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 위로 박새가 “찌찌 베베 ~”거리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동고비는 “휘익~ 휘익~ 흰 구름 뜬 상공을 빨랫줄 같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다. “빠약 빠약” 직박구리, “쪼르르르” 유리딱새 등 산중 텃새들의 합주에 땅

값, 개발 운운했던 일행은 순간 머쓱해지고 세속적인 잡념이 소멸해 버렸다. “새소리 좋죠? 이건 소리가 아니라 명상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런 숲에서는 20분만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뇌가 ‘여긴 안전하다’고 판단해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정말 그렇네요. 고작 몇 분 들었는데 이상하네... 불안감이 작아졌어요” 일행인 류근종 처장이 말했다.

그가 더 깊은 숲길로 일행을 이끌며 말했다.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청설모, 설치류, 멧돼지까지 야생동물들은 다 여기 삽니다.” 그가 길의 진흙에 남은 발국을 가리켰다. “멧돼지 발자국입니다. 지나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의 귀뜸에 놀란 일행이 물었다. “건다가 멧돼지를 만나는 건 아니죠?” “아뇨. 지금 숲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마을이나 밭으로 내려오나요?” “아뇨, 내려오지 않습니다. 숲에 먹이가 충분하니까요, 야생동물도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밭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먹이가 없어서 목숨 걸면 몰라도”

오솔길은 숲속의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가듯 뻗어 있다. 일행이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다. “이런 숲이 10만 평이지요? 산에 들어와 있으니 감이 안 잡히네요” 그가 대답했다. “대략 18홀 골프장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서야 숲은 ‘규모 있는 공간’으로 보였다.

그가 심은 나무는 차(茶) 수심 그루와 25년 전, MBC 여의도 사옥 남문에 있던 단풍나무 새끼 묘목뿐이었다. 어느새 그 묘목은 어머니의 자태를 빼다 박은 듯이 큰 단풍나무로 자라 그로 하여금 젊은 날을 불살랐던 MBC를 추억하게 한다. 그러나 부부처럼 몸을 기대고 자라는 연리송(連理松) 군락을 비롯한 숲속의 모든 나무는 누구의 설계도 없이 빛 한 줄기, 공간 한 뼘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러면서도 묘한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생태 숲을 만들어 놓았다. 숲은 사람의 손보다 자연의 시간을 따라 자란다.



숲속 도서관 카페가 들어설 언덕 멀리 탐정호가 보인다

빛물을 가두는 부엽토, 서서히 물을 흘려보내 계곡을 살려

숲 바닥에 켜켜이 쌓인 부엽토는 거대한 스펀지다. 비가 오면 물을 잔뜩 머금었다가 서서히 내어주었고, 그 물은 실개천이 되어 숲을 적시고 시냇물이 되어 계곡을 흐른다. 이렇게 세 군데의 계곡이 살아나면서 숲은 생명력과 자생력을 얻었다.

그가 “골프장은 사람이 만든 공간이지만 이 숲은 20년 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스스로 복원한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야생의 생태 숲이 될 때까지 그가 특별히 한 일이 거의 없었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는 숲을 가꾸기보다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자연은 방임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이 비켜선 자리를 채우며 스스로 가장 완벽한 숲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사교 후 다시 찾은 김승월 사우, 류근중 사무처장

“멋지죠? 이곳 전체가 제가 평생 꿈꿨던 저의 이니스프리 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죠. 본사를 다닐 때부터 저는 서울 거리의 인파, 매캐한 매연, 잿빛 빌딩이 싫었습니다. 고향 호숫가의 물소리, 새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은퇴하면 반드시 돌아 오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가 웃으며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아버님에게 졸랐지요. 이 산을 사자고요. 아버지 재산과 저의 재산을 보태서 몇 년 동안에 걸쳐 산을 샀어요. 섬 같은 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나만의 이니스프리 섬, 숲속 카페 도서관 세울 터

그는 숲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려 하고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숲속 도서관을 짓고, 생태 카페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숲 가장자리에 둔 3개의 컨테이너에 책을 쌓아두었다. 그가 녹슨 열쇠를 따고 문을 열자, 책 냄새가

쏟아져 나온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평생 읽고 모은 책입니다” 수만 권은 되어 보이는 책들이 조용히 다음 생을 기다리는 듯했다.



숲속 도서관에 들어갈 컨테이너 안의 책들

“여기에 도서관과 카페를 지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바람이 숲을 흔든다.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숲의 생태를 즐기고, 쉬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이미 완성된 듯했다. 20년간 산을 사들이며 품었던 꿈, 섬 같은 산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세상이 온 듯 반짝였다.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경제성장의 신화가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끝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개발하는 동안 숲은 사라졌고 강은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삶의 의미는 오히려 희미해졌잖아요. 제가 꿈꾸는 것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경제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무한히 성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은 자연의 건강과 인간의 정신적 풍요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책을 읽고 숲길을 걸을 것이다.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삶의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될지 모른다. 풍요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누리는 것임을.

그는 일행을 차에 태워 탐정호로 데리고 가서 수변 데크 길을 걷게 해주었다. 고개를 돌리니 멀리 그의 산, 국사봉(300m)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 도서관도, 카페도 완성되지 않았다. 과연 그는 경제를 자연과 화해시키고, 인간을 다시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여주려는 듯 탐정호수는 생태·경제적 실험이 펼쳐질 그곳의 풍경을 비추고 있다.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숲이 건네는 오래된 약속’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생각하는 시간

메시지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과 정보통신혁명을 일으키며 공기, 물, 햇빛, 토양과 같은 자연 자원을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써왔다. 그 결과 누적된 환경 부담은 기후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자연이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해 요구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와 생태가 자연의 기반 위에서 상호 의존하는 공존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찰한 이는 북미 원주민 지도자인 시애틀 추장이다. 그는 1850년대 미국 정부의 토지 매입 제안과 관련하여 남긴 연설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비록 오늘날 전해지는 그의 연설문은 여러 차례 번안과 재구성을 거쳤지만, 그가 말한 정신만큼은 확실하다.

시애틀 추장은 ‘인간이 땅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는 문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간은 대지의 주인이 아닌, 일부일 뿐이며 강과 숲, 동물과 바람은 모두 같은 생명의 형제”라고 본 그는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존재가 아니라 그물의 한 가닥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연에 가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면서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는 말로 인간과 자연의 운명은 하나임을 강조했다. 최근 타계한 미국의 CNN 창업자 테드 터너 역시 이러한 철학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멸종 위기에 놓였던 아메

리칸 들소 복원 사업에 힘써 생태계 회복이 곧 경제를 살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송원근 사우의 생태산림 또한 시애틀 추장이 남긴 자연관, 그리고 아메리칸 들소 복원에 평생을 바친 테드 터너의 실천과 맥을 같이한다. 숲이나 산림을 물과 흙, 나무와 새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 경영의 근본이었다. 홍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가뭄이다. 숲이 빗물을 품어 계곡을 살리고, 계곡은 강을 이루며, 강은 마침내 사람의 생명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의 그물망이었다. 기후재앙의 시대를 건너는 길도 다르지 않다. 자연을 희생시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생태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끝없는 자본의 탐욕을 절제하고 공존의 질서를 회복할 때 비로소 미래가 열린다.

.....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디언 시애틀 추장의 경고는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미래의 예언일지도 모르겠다.



편집부

/회/원/동/정/

1주기 추모미사 故김진희

‘김진희 글라라 PD 1주기 추모 미사’가 지난 5월 6일 사우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우준 신부의 주재로 고인과 함께 일했던 PD, 성우, 그리고 대학연극동아리 선후배 등 18명이 참석해 함께 고인을 추억했다.



제 22대 국회의원 이진숙

이번 선거 기간 중, 딸의 혼사가 있었지만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사우가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대를 약 26%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공직을 시작했다.



경로당 회장 취임 정진철

정진철 사우(전 강릉MBC사장, 91세)가 자신의 인생에세이 《흐르는 강물처럼》을 출간한 데 이어 최근, 분당에 있는 미켈란젤로빌의 경로당 회장으로 취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와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OBS 프로그램 진행 고주룡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고주룡(보도)사우가 OBS의 《고주룡의 참 쉬운 경제 99.9》진행을 맡았다. 경제를 생활 속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의 마이크를 잡은 고 사우는 인천광역시 대변인과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국희(ANN)
6월 4일 별세
향년 88세
1964년 ANN 입사
한밤의 음악편지,
여성살롱 임국희예요 DJ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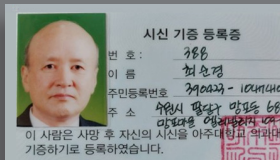
이현보(업무)
6월 18일 별세
향년 95세
1967년 업무직 입사
(주)문화방송경향신문
영업차장



정상화(대구)
6월 19일 별세
향년 88세
1967년 대구MBC
기자 입사, 보도부장,
동남지역본부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마지막까지 스승이셨던
최순경 선배님을 그리며



1997년 정년퇴직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으셨던 최순경 선배님(1970년 입사). 근년에 선배님 댁에서 가족분들을 뵈고, 뒤늦게 육신을 아주대학교 의학교육을 위해 기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배님의 생전 모습과 가르침이 더욱 또렷이 다가왔습니다. 시설관리담당국장으로 재직하시며 후배들에게 실무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시면서 선배님은 “내가 남긴 것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배님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의학 교육과 연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따뜻한 인품을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신승철

경조사항

- | | | |
|-------------------------|--------------------|-----------------------|
| 구 순: 안병태(관리) 37.08.05. | 유경준(전주) 37.08.11 | |
| 팔 순: 이시권(편제) 47.08.23. | 김종창(편제) 47.09.14. | |
| 고 희: 이수용(보도) 57.07.25. | 송원근(관리) 57.08.01. | 임흥식(보도) 57.08.01. |
| 이용우(보도) 57.08.02. | 손목현(기술) 57.08.02. | 봉필호(보도) 57.08.14. |
| 박정근(편제) 57.08.18. | 김민경(관리) 57.08.20. | 한윤희(관리) 57.09.02. |
| 윤 진(기술) 57.09.02. | 박상준(관리) 57.09.03. | 허연희(보도) 57.09.06 |
| 서경주(편제) 57.09.08. | 박한근(기술) 57.09.09. | 조덕형(기술) 57.09.11. |
| 회 갑: 이형곤(관리) 66.08.09. | | |
| 결 혼: 이진숙(보도) 딸 05.31 | 함상호(보도) 딸 06.07 | 김용관(편제) 아들 06.13 |
| 유덕진(보도) 아들 06.13 | 윤영무(보도) 아들 06.14 | 김학정(기술) 아들 06.21 |
| 이명숙(관리) 딸 06.20 | 이흥철(기술) 아들 06.27 | 김흥기(보도/영상편집) 아들 07.17 |
| 부 음: 안재기(보도) 배우자상 04.26 | 김희을(기술) 배우자상 05.09 | 황효성(관리) 부친상 05.18 |
| 주원국(보도) 모친상 05.22 | 양진면(편제) 장모상 05.24 | 이정준(보도) 부친상 06.01 |
| 신진규(기술) 장모상 06.02 | 남궁찬(편제) 모친상 06.04 | 오순심(편제) 배우자상 06.08 |

- 김귀현(관리) 시부상 06.10
성보영(기술) 장모상 06.19

- 신대근(보도) 배우자상 06.13
황재원(기술) 배우자상 06.20

연회비

- | | | |
|-----------------|---------|---------|
| 평생회비 : 이진덕(편제) | 김성아(관리) | |
| 2025년 : 이범수(업무) | | |
| 2026년 : 황종휘(관리) | 오순심(편제) | 김종민(편제) |
| 주원국(보도) | 장두형(대전) | 전형찬(관리) |
| 이오기(편제) | | |

주소변경/신규

- | | |
|----|---------------------------------------|
| 편제 | 이진덕 서울 용산구 이촌로 181 (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
| | 김동명 경기 파주시 마음밭길 114 (금촌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 |
| 보도 | 이우호 서울 은평구 진관4로 48-8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 |
| | 이병익 경기 하남시 위례대로6길 45 (학암동, 위례숲 우미린) |
| 관리 | 김성아 서울 용산구 이촌로 181 (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

MBC사우회
협약업체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네오블루매 플라워(박건미 대표) 010-3343-8973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 1577-0196
JC소망안과(여의도) 전용예약 콜센터 02-785-1068

그리운 임성기 선배님

신준우(편제)

1969년 8월 개국한 MBC-TV는 초기 제작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지요. KBS와 TBC 등에서 경력 PD들을 영입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임성기 선배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당시 MBC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획력과 제작 능력으로 수많은 정규 프로그램 성공시켰고, 대학가요제·강변가요제·전주대사습놀이 같은 기념비적인 프로그램을 탄생시키셨지요. 선배님은 중견 PD를 거쳐 편성·제작국장을 맡으신 뒤에도 동료와 후배들에게 연성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말수도 적었던데다 늘 긍정적이셨지요.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후배들은 방송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 5·17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5·18 광주항쟁, 그리고 그 해 수백 명의 언론인과 수천 명의 공직자가 강제 해직됐습니다. 선배님 또한 해직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러한 애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선배님의 의연함을 보며 남은 직원들은 안타까움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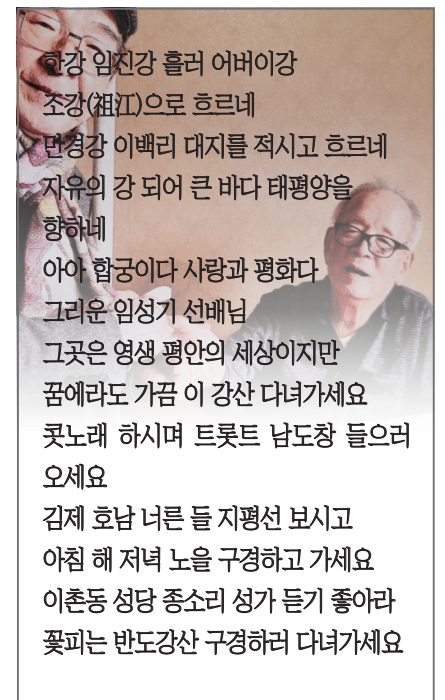
해직 기간에 출판사를 운영하신 선배님, 우연히 저는 선배님의 집안 소식지인 『한울타리』에서 선배님이 기고하신 글을 읽다가 선친이신 임회영 어르신께서 독립운동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 그래서 선배님처럼 올곧고 신념 있는 분이 나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선친의 삶과 정신이 선배님께 이어졌음을 느끼며 깊은 존경과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요.

건강이 안 좋아지신 4~5년 전부터 저는 선배님댁을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선배님이 옛 동료와 후배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마다 제가 이름을 떠올려 드리고 근황을 전해드렸지요. 그러면 반가워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님은 제게 시바 료타로의 장편소설 『료마가 간다』를 꼭 읽어보라며 권해 주셨습

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지 못할 상황인데도 일식 우동을 안주 삼아 소주 한 두 잔을 드셨지요. 고려대 언론대학원 동기 30여 명은 선배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계기로 료마의 고향인 시코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했던 인물로 알려진 료마의 ‘선상팔책(船上八策)’과 해양 전략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가시는 길은 어찌 그리도 서두르셨나요? 지난해 연말 한남동 순천향대학교병원 빈소에서 선배님께 마지막 큰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멀리 미국 미시간에서 따님도 달려오셨고, 자손들이 곁을 지키고 있어 빈소는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후배들의 마음은 허전함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저는 이따금 이른 아침이면 저의 집 동편에 있는 검단산과 예봉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 찬란한 아침 햇살을 볼 때마다 선배님의 온화한 미소와 올곧은 삶이 생각납니다. 한평생 신념을 지

키며 후배들에게 길을 밝혀주셨던 선배님, 그 가르침과 따뜻한 정,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근심과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쉬세요. 선배님의 영전에 시 한 수 올리며 삼가 합장하나이다.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이진덕(편제)
1987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카메라,
드라마 제작 등
2024년 정년퇴직



김성아(관리)
1987년 관리직 입사
제작운용부,
관계회사팀 근무
1997년 명예퇴직

/알림/

MBC사우회 임원간담회 개최

2026 상반기 주요결산
하반기 주요일정 토의

- 일시: 7월 23일(목) 11:00
- 장소: MBC스마트센터 강남사옥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4월 30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정진철(보도)
100만원



윤영무(보도)
100만원



강태선(기술)
30만원



석남수(기술)
30만원



함상호(보도)
30만원



이흥철(기술)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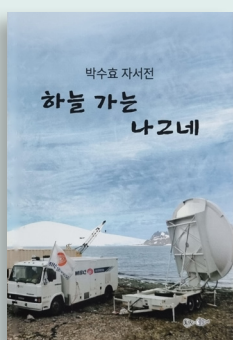
김성한(관리)
2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하늘 가는 나그네』 박수호 사우의 자서전

신간안내 ■■



올해 86살의 박수호 사우가 《하늘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자신의 뿌리에서부터 학창 시절, 신앙생활, 사회생활, 해외와 남극에서의 경험, 그리고 재테크까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175페이지에 담담하게 담았다. 2년 만에 탈고했다는 그는 재테크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고 신중함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했다.(출판사 현인)

정동레터

♥ 화초를 외면하고 스마트폰에 빠진 자녀와 손주를 탓하지 말자. 그런 손자 없는 사람도 많다^^
♥ 휴일이냐 업무시간 외에 사우회에 연락할 긴급한 일이 생긴다면? 류근중 사무처장의 개인 휴대전화(010-8955-3952)를 이용하세요!
♥ 내가 가진 숲이 없다고 섭섭해 말자. 숲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머무름이다. 송원근 사우가 이미 우리를 위해 숲을 열어놓았으니 그곳에 종종 놀러가야겠다~

♥ 추도문이 넘쳐 지면이 좀 우울하지만 그건 아직 사우회가 따뜻하다는 증거고 행복한 고민이 아닐런지....
♥ 편집장님! 아들 장가 보내고 무슨 여유로 발전기금을 100만원씩이나... 보통은 아이들에게 다 털리기 마련인데 일단 좀 멋지신 듯^^
♥ 사우회보의 **오타자**를 찾아 **'스타벅스 커피'** 선물을 주는 이벤트는 쭉~욱 계속됩니다. 95호에서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네요.....

편집부

노홍철

최강록

고경표

바니보틀

놀이공원에 미친 남자들의
전세계 놀이공원 로드트립이 시작된다!

놀워크스터

매주 일요일 밤 9시 10분

**MBC**